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탑상’ 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불탑과 불상…재래신앙 대체 과정 살펴야

1. 탑상의 조성 사실

『삼국유사』 전 5권 9편 138조목 중 30조목을 수록하고 있는 「탑상」편은 36조목을 싣고 있는 「기이」편에 이어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것은 「흥법」편과 「탑상」편 사이에 끼어 있는 ‘동경 흥륜사 금당 십성’ 조목을 제외한 숫자이다. 이 조목은 ‘불법를 중흥시킨’ [興法] 신라 출신 열 명을 흙으로 빚은 소상[泥塑]을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中宗 壬申本, 1512년)의 편제와 같이 「흥법」편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탑상」은 삼국 혹은 사국 시대에 조성된 탑상의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탑상에 대한 신앙의 시말(始末)을 보여주고 있다. 불탑과 불상을 가리키는 「탑상」이라는 편명이 풍기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30조목 중 너 댓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탑상에 대한 신앙의 연기(緣起)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여기에는 불탑과 불상의 조성 인연이 있는가 하면 조성과는 무관하게 홀연히 탑상이 출현하거나 아니면 존상의 진신이 출현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불탑과 불상은 붓다의 삶과 직결된다. 흔히 우리는 남방 불전에 의하여 붓다는 6년 고행과 3*7일 선정 끝에 정각을 얻고 45년 전법을 한 뒤 80세에 열반에 들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북방 불전은 붓다는 19세 출가 이후 6년 고행 끝에 다시 6년 수행을 통해 성불을 하였으며 49년 혹은 50년의 설법 끝에 79세 혹은 80세에 열반에 들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연대는 천태학의 오시(五時)교판에서 말하는 전법 기간을 셈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12년의 수행 끝에 깨침을 얻은 붓다는 3*7일 동안 선정에 들어 2*7째에 『화엄경』을 설하였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어서 오백 명의 비구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자리를 떴다. 그러자 붓다는 다시 그들의 안목에 맞추어 12년 동안 녹야원에서 아함부 경전을 설하였다. 이어 8년 동안 방등부 경전(『범천사익소문경』, 『유마경』)을 설하였다. 뒤이어 21년 내지 22년 동안 반야경 경전을 설하였다. 마지막으로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고 열반 직전 1일 1야 동안 『열반경』을 설하였다. 설법 기간을 모두 합쳐 보면 49년 또는 50년이다.

붓다가 열반에 들자 인도의 풍습에 따라 화장을 하였다. 그의 유해(舍利)는 8등분으로 나준 뒤 불교를 신행하는 여덟 명의 왕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유해를 가져가 분묘를 만들었다. 그 분묘를 신성하게 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뒤늦게 도착한 두 왕은 할 수 없이 그 재와 병을 가져가 각기 회탑과 병탑을 세웠다. 뒷날 아쇼카왕이 다시 이들 분묘에 모신 붓다의 사리를 나누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리를 모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사리를 모신 시설물을 탑파(塔婆, stupa)라 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상의 조성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원전 313년에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재위 BCE. 336~323)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하였다. 그가 서인도 지방에 진출하면서 불교계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알렉산더는 간다라 지역에 많은 희랍계의 예술가들을 보내 문화 공작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결과 희랍 신상과 인도 신상의 양식이 결합된 불상이 널리 조상(造像)되었다. 이것은 대승불교 발전의 촉매가 되었다.

워낙은 붓다 재세 당시에 불상 조성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붓다가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러 도솔천에 올라가자 우전왕은 붓다가 그리워 그를 닮은 불상을 조성하였다. 그 뒤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이후 불상 조성의 구심은 미투라 지역으로부터 아잔타와 엘로라 지역을 거쳐 간다라 지역 주변까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들 불모(佛母)들이 빚어낸 불상은 신앙의 대상으로 승화되면서 인간적인 붓다를 넘어서서 신비적인 붓다로 변화하였다. 보통의 인간과 다른 특색을 지닌 32상 80종호를 지닌 붓다를 형상화한 불상은 그의 비범한 인격을 상징화한 것이었다. 불모들은 점차 붓다의 신성성과 신비성을 가미하면서 더욱더 추상화된 불상을 조성해 갔다. 그리하여 불상에 대한 신앙은 법보와 승보에 대한 신앙으로 확산되면서 신성한 삼보에 대한 신앙으로 정착되어 갔다.

탑에 대한 신앙의 연기 실어
불상은 대승불교 발전에 촉매제
붓다 사리 나눈뒤 불탑 조성 확대

2. 탑상에 대한 신앙

인도 대승불교는 불탑신앙의 흥기와 불전문학의 탄생 및 대승불전의 찬술 등을 기원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출가자들은 고요한 승원에 앉아 자신의 이익[自利]와 자신의 깨침[自覺]에 치중하고 윤회의 주체로 상정한 미세한 존재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면서 대중들과 멀어져 갔다. 그러자 대중들은 붓다의 진신에서 나온 사리를 모신 불탑을 벌판에 세우면서 그를 향해 칠보로서 보시 공양 공경 예배를 하였다. 모든 경제권이 불탑 주변에 집중되었다. 한동안 무관심했던 출가자들은 교단 내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자자 주도의 불탑신앙을 전환시키기 위해 공덕사상을 제창하였다. 때마침 불전문학의 탄생에 힘입어 대승불전이 찬술되었다. 그리하여 출가자들이 주장한 전법 공덕사상은 힘을 얻었다.

황룡사 9층 목탑 3D 조감도. 신라시대 불탑과 불상 신앙은 한국 고유의 샤머니즘을 대체했다.

그들은 『금강경』의 “무릇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凡所有相]/ 모두 허망한 것이니[皆是虛妄]/ 만일 형상을 지닌 것들이 진실한 모습이 아님을 보게 되면[若見諸相非相]/ 곧 여래를 보게 된다[即見如來]”는 사구게와 같은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공덕이 불탑을 향해 칠보로 보시 공양 공경 예배하는 공덕보다 크다고 역설하였다. 출가자들은 벌판에 모신 사리 불탑 대신에 승원에 경권(경전) 불탑을 조성하면서 신앙의 구심을 승원으로 옮겨갔다. 재가신자들은 공덕사상의 창안에 부응하여 다시 승원에 모신 경권 불탑으로 옮겨 신앙을 하였다. 결국 재자가 주도의 대승불교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출가자 주도의 아비달마 불교로 축을 옮겨갔다. 그리하여 아비달마 불교의 주도 아래 대승불교는 부분적으로 흡수되었을 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반면 동아시아로 전해진 북방불교는 불탑 속에 사리와 경권을 동시에 봉안하였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중국의 여러 탑이나 한국의 불국사 서탑 석가탑에서 나온 사리병과 묵서지편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전신앙과 사리신앙이 동거하고 있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환인과 환웅을 숭배하는 천신신앙과 단군을 숭배하는 산신신앙 및 고목신앙과 토템신앙은 한동안 서로 길항하였다. 하지만 새로이 전래된 불교는 천신과 지신과 용신이 상호 결합된 재래신앙을 포용하여 불교의 호법신중으로 섭수하면서 대표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와 달리 이차돈의 순교 사건과 법흥왕의 출가 사건을 통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삼국유사』는 이러한 재래신앙과 불교신앙의 갈등과 대결과 전환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다.

신라의 불교 전래 과정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묵호자가 불교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것은 향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향을 사루면 향기가 널리 퍼지니 신성에 정성을 도달케 하려면 신성은 삼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재래의 신성관념이 불교의 삼보에 대한 신성 관념으로 대체되면서 불교의 신성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단군과 주몽과 혁거세 등이 보여주는 천신신앙과 웅녀와 유화와 알영 등으로 대표되는 지모신 신앙은 천신과 지신에 대한 숭배사상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용신신앙의 주체였던 한 부족이 가락국을 거쳐 신라로 옮겨온 석탈해 이야기는 천신과 지신 이외에 용신 신앙의 존재를 시사해 준다.

이처럼 이들 이야기들은 모두 재래의 신성관념이 불교의 신성관념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불교는 이들 천신과 지신과 산신 및 용신 신앙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보호를 받거나 그들을 포용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의 전입이 재래신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좌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속의 일부 향가와 민요 등은 이러한 갈등과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절창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탑상」편이 보여주는 신앙의 시말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재래의 천신과 지신과 산신 및 용신 신앙의 기반 위에서 불교가 뿌리내릴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불교적 용신앙은 호법룡과 호국룡이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탑상과 불국토사상

『삼국유사』「흥법」편의 ‘원종흥법 염촉멸신’ 조의 “절과 절들은 별자리처럼 벌려 있고[寺寺星張] 탑과 탑들은 기러기처럼 날아간다” [塔塔雁行]는 묘사처럼 신라의 수도 서라벌은 신라인들에게는 불국토였다. 신라인들은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보다 강력하게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려고 했다. 그들은 불교적 우주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우리 선조들은 경주 남산을 중심으로 한 수미산 세계관을 자신들의 우주관으로 확보하고 불국토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특히 경주 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이나 황룡사 장육상, 구층탑 등은 모두 불법의 수호 아래 불국토를 이룩하여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신라인들의 불교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승원 경전불탑 조성 신앙 옮겨가
북방불교 사리와 경전 동시 봉안
신라 불국토 상징 불탑으로 발현

그렇다면 이러한 호국 사찰들이 창건되고 불탑들과 불상들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계기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고구려와 백제 역시 호국 사찰과 불탑과 불상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유독 신라의 경우에는 호국과 호법사상에 입각한 사찰과 불탑과 불상들이 다수였다. 호국 사찰과 불탑과 불상들은 법흥왕의 불교 공인 이래 진흥왕부터 본격화 되었다. 그런데 이후 오랜 재위를 한 진평왕 대에 이르러 성골(聖骨)의 남자가 다하였다. 성골 귀족들은 진골에게 왕위를 넘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흥왕 이래 확립된 골품제 체제에서 성골 후사를 얻지 못한 진평왕의 명에 의해 진종설 및 불연국토설로 창안한 것은 아닐까?

삼국 또는 사국에 불교가 유입된 계기를 더듬어 보면 정복 전쟁 하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그드른 전쟁이란 상황에서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종래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충분한 구실을 다했다고 생각되었다. 해서 삼국의 불교 전입 경로는 바로 삼국 혹은 사국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상호관계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진평왕 당시 삼국 또는 사국은 수십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삼한일통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것은 영토 확장을 꾀한 진흥왕 이래 이미 가동되고 있었다. 그런데 진평왕 대에 성골의 남자가 끊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국반과 같은 광인에게 정권을 넘기느냐 아니면 공주 선덕에게 왕위를 넘기느냐는 갈림길에 있었다. 결국 그들은 선덕을 후사로 결정하였다. 때문에 여인으로서 왕위에 오르게 될 선덕을 위해 보다 많은 기획과 장치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기획과 장치는 국가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때문에 종래의 재래신앙을 아우른 불교는 ‘신라 십성’에 들어 있는 안함과 자장과 같은 고승들이 불연국토설과 진종설 등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창안해 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워낙은 안함에 의해 불연국토설이 기획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다가 자장이 귀국 이후 본격화한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 내지 국가를 위한 현세이익적인 불교신봉은 종래 샤머니즘의 무격적 신앙을 대신하여 그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샤머니즘과 불교의 교대가 이루어지고 무격(巫覡)의 무력(武力) 대신 불승의 위력(威力)을 드러내는 사실 혹은 설화가 나타나게 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탑상」편은 불교의 양대 신앙대상인 불탑과 불상에 대한 숭배와 조성사실 및 재래신앙에서 불교신앙으로 대체되는 과정과 정착되는 과정을 「의해」편과 함께 『삼국유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황수영, 「삼국유사와 불교미술」, 동북아세아연구회 편, 『삼국유사의 연구』(1982).
이기백,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6, 1954.
김정배, 『한국고대사론의 신조류』(고려대출판부, 1980).
홍윤식, 「삼국유사와 탑상」, 동북아세아연구회 편, 『삼국유사의 연구』(198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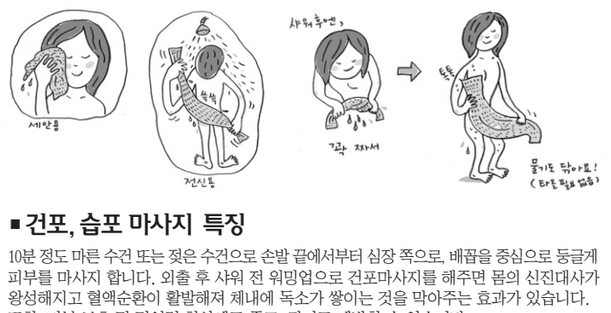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